

발표구분 : 포스터, 연락처 : 010-4701-0730(e-mail : landlife@korea.kr)

## 에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지역 활성화 연구

### - 충주시 주덕읍 일원을 중심으로

A Study for Regional Activation based the Concept of Eco-museum

- Focused on in all over Joodeok-eup, Choongju-si

김상범\* · 손호기 · 김은자 · 이상영 · 이동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Sang Bum, Kim\* · Ho Gi, Son · Eun Ja, Kim · Sang Young, Rhee · dong gwan, le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Resources Division

최근 지역개발에 있어 각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 양식, 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형태로 에코뮤지엄의 설립과 운영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자연환경 및 지역 발달과정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보전·육성하여 전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박물관으로, 유럽 에코뮤지엄은 지역문화의 보존 뿐 만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농촌문화의 보존을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농촌문화 보존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구대상지인 충주시 주덕읍 일원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기초로 한 친환경농업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의 농업자원에 친환경을 테마로, 미래 농업 비전 및 첨단 농업기술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거점지역으로 확보하고, 역사적으로 세계에 가장 오래된 ‘소로리’뽕씨가 출토된 곳으로 역사성을 간직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충북 브랜드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부각시킬 수 있는 Bio(생명산업)와 Solar(태양광산업)를 접목한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농촌관광, 체험학습, 친환경농산물 등을 활용한 농외소득을 제고하여 지역 활성화 및 소득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간별 주요 내용에는 주덕역을 활용한 주덕 농경문화 갤러리로 쌀역사·종류·품종 등 우리나라 농경문화 전시 및 관광정보 자료제공과 농산물판매 및 홍보를 위한 장소로 리모델링하였다. 정미소 일원에도 체험공원으로 조성하여 정미 및 가공품 만들기 체험, 판매장, 편의 휴게공간, 각종 시설물 전시공간(디딜방아, 통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등)조성, 뽕씨농업박물관, 농업체험마당, 연풍느티나무쉼터, 새참쉼터, 주덕생태공원 등 주덕마을 일원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지역유산들을 가능한 주변 자연환경과 더불어 현장 보전·전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역 전체가 박물관으로서, 활동의 주체는 지역주민으로 지역주민이 학예사, 생태가이드, 친환경농업인 등의 역할로 활동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에코뮤지엄을 형성하고자 함이다